



5월 9일(목) 오후 7시 복미주 한인 사목 사제협의회 본당 방문 미사.
컨퍼런스 참석 사제단과 문희중 요한 세례자 주교님께서 장엄 강복을 주고 있다.

[제1독서] 사도 13,14.43-52

[제2독서] 묵시 7,9.14L-17

[화답송] 시편 100(99),1-2.3.5

[복음 환호송]

(© 3c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복음] 요한 10,27-30

○ 온 세상이,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성가 안내]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입당성가: [55] 착하신 목자
- 봉헌성가: [217] 정성 어린 우리 제물
- 성체성가: [498] 예수여 기리리다
[198] 성체 안에 계신 주님
- 파견성가: [135]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예수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나는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27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28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29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30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묵상

이스라엘 땅은 농사보다는 목축에 적합합니다.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신선한 풀이 자라는 곳으로 이동시켜 배부르게 하고 목을 축이게 합니다. 그런데 양은 귀는 밝지만 눈은 그만큼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소리로 양을 이끕니다. 목자는 앞장서 가며 양을 목소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자의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양들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잘 구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왔을 때 늘 배부르고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따를수록 더욱 목자의 목소리를 믿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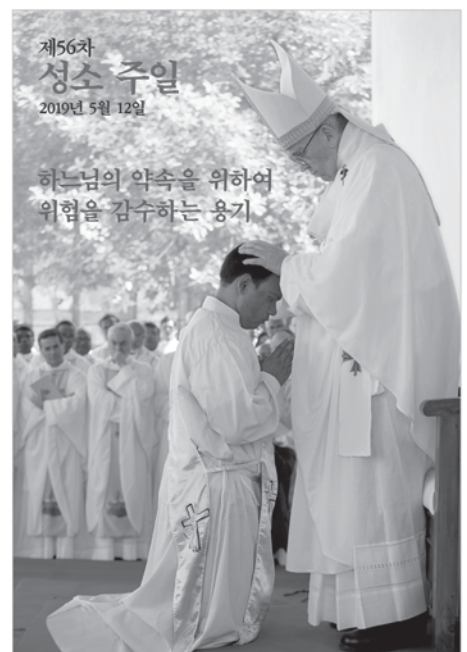
이는 아이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에게서 오는 그 사랑에 익숙해져 어머니의 목소리만 따르면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양들도 목자들이 자신들의 배를 곯게 하고 위험한 곳으로 인도한다면, 목자의 목소리에 대한 믿음을 잃고 더 이상 그 목소리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하시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은 이미 예수님께 길들여진 양들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착한 목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당신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양들은 착한 목자만 따릅니다. 교회의 목자들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양들은 더더욱 교회 목자들의 목소리를 신뢰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전삼용 요셉 신부)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하느님의 약속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10월 젊은이를 주제로 열린 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활기차고 풍요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파나마에서 제34차 세계청년대회가 거행되었습니다. 이 커다란 두 행사를 통하여 교회는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젊은이들의 삶, 그들의 의문과 관심사, 그들의 문제와 희망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측면, 곧 약속과 위험에 관하여 여러분과 짧게 묵상해 보려 합니다. 이 약속과 위험은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에서 당신의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복음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마르 1,16-20 참조).

모든 부르심처럼, 이 복음은 만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어부들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우리가 혼인 생활을 함께 하고픈 사람을 만날 때나 처음으로 봉헌된 삶에 매력을 느낄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움을 안겨주는 만남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해 줄 수 있는 기쁨의 약속을 예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하느님께서 우리 자유에 개입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어 우리가 원대한 계획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시는 사랑의 이끄심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눈앞에 더욱 넓은 바다와 풍성한 고기잡이의 지평을 펼쳐 주십니다.

모든 성소는, 그물을 손에 든 채 바닷가에 서 있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행복과 우리 이웃의 선익을 위하여 마련하신 그 길로 나서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당연히 선택의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자신을 모두 내맡기고 새로운 도전을 마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작은 배에 연연하며 결정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소라는 드넓은 ‘대양’을 눈앞에 두고 안전한 배 안에서 그물이나 손질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저는,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받은 그리스도교 생활에 대한 부르심을 생각해 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 생명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선물임을 기억하게 해 줍니다. 교회라는 커다란 가족 안에 모인,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생활은 바로 교회 공동체, 특히 전례를 통해서 태어나고 자라납니다. 전례는 하느님 말씀과 성사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리스도교 생활은 선택들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 선택들은 우리 개개인의 항해에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사회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성장에 이바지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에서 누군가는 봉헌 생활이나 성품 사제직에 대한 부르심에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열의를 북돋우지만 이와 동시에 두려움도 불러일으키는 발견입니다. 복음과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충실히 봉사해야 하는 사명에 자신을 전적으로 바쳐 교회의 배 안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부르심을 느낄 때 그러합니다. 이를 선택할 때에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며 주님 사업의 협력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자기 삶을 바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닫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길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배 안에서 노만 짓지 말고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서는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벗 여러분, 자신의 성소를 식별하고 삶의 올바른 방향을 찾는 일이 언제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사제, 수도자, 사목 일꾼, 교육자를 비롯하여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누구보다도 젊은이들에게 경청과 식별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기도, 하느님 말씀 묵상, 성체 조배, 영적 동반을 통하여 하느님 계획을 발견하도록 돕는 청년 사목과 성소 증진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젊은 여인의 이야기 안에서도 성소는 약속인 동시에 위험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사명은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예.’는 직접 동참하기를 바라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의 ‘예.’였습니다. 자신이 약속의 전달자임을 알게 된 확신 말고는 다른 아무런 보증도 없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예.’였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어려운 사명을 받으셨지만, 다가올 그 어려움 때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매우 혼란스러우셨겠지만, 그 혼란스러움은 모든 것이 명확하거나 확실하지 않아서 미리 겁을 먹고 아무 것도 못할 때 느끼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젊은이들과 함께한 밤샘 기도, 파나마, 2019.1.26.).

이번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 삶을 위한 주님 사랑의 계획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하여 처음부터 마련해 두신 길로 나아갈 용기를 주시도록, 주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 루카회, 요한회, 베드로회, 바오로회, 로고스, 라파엘 친선 체육대회



요한회(회장 이재민 바오로)가 주관한 6개 단체 체육대회가 지난 5일(일) 하상관에서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청·백팀으로 나뉘어 치러진 배구대회에서는 루카·베드로·바오로 합동팀이 요한·로고스·라파엘 합동팀에 2대 1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열기를 더했다. 특히 올해 첫 참가한 60대 교우들의 모임 루카회는 강세원 바오로 등 몇몇 교우들이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경기 전 강복을 주신 백인현 안드레아 신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강조되는 것이 바로 친목”이라며 “오늘 즐거운 체육대회를 통해 성당 내 단체간의 화목을 더욱 돈독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후 우천으로 인해 친교실에서 가진 친목 행사에선 회원 및 가족 모두 요한회가 마련한 음식을 들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6개 단체 체육대회는 지난 해부터 요한회가 적극 나서 성사된 연례별 단합 행사로, 앞으로 각 단체 영육간의 건강과 친목을 다지는 연례행사로 지속될 계획이다.

감사합니다!

제대 꽃 봉헌자 | 박상웅(마르티노), 조동훈(아브라함), 양요한, 박춘선(롤롬바), 최환용, 이경식(도로테아), 안순상(요한), 조성수(라우렌시오), 은기권(루가), 권선안(이나시오), 권경옥(데보라), 최평란(테레사), 객재옥(로사), 전종민(가브리엘), 양명암(안드레아), 최혜숙(수산나), 안진이(제올지아), 전수일(야고보), 한기근(안토니오), 이신규(테오도로), 홍익훈(요셉), 윤영미(로사리나), 김인자(마리아), 강수환, 이상길, 조재형, 정형순, 허권(베네딕도), 이규석(프란체스코), 유수운, 김기수(요한), 윤비비안나, 안중윤, 조남식, 한기남, 김줄리, 노영숙(베로니카), 정규임(마가렛), 조순우(로사), 이순례(사비나), 이창재(베네딕도), 최숙희(수산나), 이광재(다윗), 천석기, 임용균(어거스틴), 조현욱(안젤라), 정우진(미카엘), 황원균(알렉시오), 이소남(소피아), 이기복(수산나), 김상애(수산나), 김문경(미카엘), 강세원(바오로), 이정렬(마리아), 변윤구(시몬), 오승영(스테파노), 정우석(필립보), 서윤배(바오로), 주홍식(도미니코), 이혜란(수산나), 송상희(토마스아퀴나스), 백현대(아오스당), 강승희(요한), 김경애(아네스), 조영인(요셉), 강혜리(엘라사벳), 이창선(마카렐라), 조명규(바오로), 서민영(세실리아), 권영수(론지노), 김영혜(안젤라), 소시아 엘리자드, 김완호(라우렌시오), 이선희(엘리자벳), 김화자(안나), 이예식(클라라), 이정화(실비아), 김정자(가브리엘라), 박옥희(소화테레사), 한경옥(로즈마리), 이영자(젬마), 박호철(바오로), 이수호(미카엘), 문인순(마리아), 차훈자(도미니), 김크리스틴, 정인수(힐라리오), 이정원(클라라), 정재민(미카엘), 김실아, 박윤희, 권광자(아네스), 이계성(대견안드레아), 황세라피나, 김초롱(줄리안나), 용봉주(암브로시오), 원현유(베로니카), 박용제(토마스), 유용래(다니엘), 백명수(마리아), 이기연(카타리나), 하흥엽(요한), 신현철, 박유스티노, 신소피아, 신수산나, 객한결, 객이주, 김영희(아네스), 유광재, 민일성(베드로), 노홍훈(아브라함), 이용현(요셉), 강금자(마리아), 한귀병(토마스), 김재우(아브라함), 이도경(엘리자벳), 김용구(가브리엘), 김형석(바오로), 이명자(벨라지아), 김인자(마리아), 최정길(요셉), 한동석(요한), 서효심(마리아), 이양순(미카렐라), 유벨라렛다, 박종부(데레사), 최현진(줄리아), 알렉스(엘렌유), 이규철(베드로), 전호정(안토니오), 윤가지(레지나), 윤정부, 지수성(요한), 김은숙(스텔라), 남효숙(말지나), 익명, 주광국(그레고리오), 유시명(베드로), 강금생(안나), 김경숙(안나), 김덕영(라파엘), 전원길(베드로), 김세린(안드레아), 박우현(야고보), 이인표(가브리엘), 흥현중(야고보), 김정수(이나시오), 황지원(크리스티나), 장태원(세레자 요한), 이창재(시몬), 최호준(루필리오), 조영훈(안토니오), 강대성(요셉), 권정미(안나), 조형진(안셀모), 박신현(테레사), 박만규(유스티노), 신정수(수산나), 박자경(소피아), 정동기(베드로), 이다연(아네스), 금화열(바오로), 김아가다, 김문철, 박상태(요한), 김홍재(아그네스), 윤봉근(도미니코), 최준재(글라리아), 이병일(다니엘), 김춘심(마리아), 김선배(마리아), 최장단, 김남식(안드레아), 김영애(골롬바), 김수희, 조경규(루가), 안송자(애우세비아), 김영수(아놀드), 최철(프란체스코), 김옥희(요안나), 유영순(안젤라), 김수자(세실리아), 윤조희, 윤조현, 윤모니카, 윤상, 김형기, 김남식, 김경애(아네스), 김제인(안나), 오복미(도미질라), 객노덕(도미니코), 박옥희, 익명, 이스텔라

❖ 총 196명 Total \$ 5420.00

● 꾸르실료, '워싱턴 여성 제17차' 꾸르실리스마 환영식



'3박 4일 꾸르실료 주말'을 마치고 '워싱턴 여성 제17차 꾸르실리스마'로 새로이 태어난 참가자들을 위한 환영식이 지난 5일(일) 친교실에서 열렸다. 백인현 주임신부와 강두영 보좌신부는 꽃목걸이를 일일이 걸어주며 110여 명의 선배 꾸르실리스마들 및 가족들과 함께 열렬히 환영했다.

참가자들은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 새로운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며 변화된 모습과 영적 체험 소감을 나누었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참가자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것 같다”며 “이 마음을 늘 간직하며 꾸르실리스마로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격려했다.



● 제17회 아시아·태평양계 성모 성지순례 17th Annual Asian and Pacific Island Catholics Marian Pilgrimage



5월 4일(토), Basilica of the 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FOURTH SUNDAY OF EASTER May 12, 2019

The Sheep and the Shephe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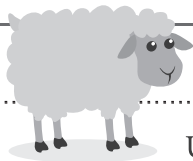
In today's Gospel reading Jesus tells us about His sheep. Do you know who His sheep are? We are His sheep! He loves us and protects us just like a shepherd cares for his sheep. And what do the sheep do in return? They listen to His voice and follow Him.

We also hear about Jesus being called the "*Lamb of God*." When He became man, He was like one of the sheep in God's sheepfold. But He was not the same as all the rest of us. He

never did any sins Himself, but He died for us on the cross to save us from our sins. That is why at every Mass we say, "Lamb of God, you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Have mercy on us."

Now that Jesus is not visibly here on earth, He has left us another shepherd to care for His flock. Do you know who that is? It's the pope! God gives him grace to guide and protect the Church. Can you say a Hail Mary for Pope Francis today?

<https://www.thekidsbulletin.com>



Jesus' Sheep WORD PUZZLE

Use the words in the list to fill in the blanks.
Use the numbered letters to fill in the blanks below.

Jesus is the 1 2 3 4 5 6 7 8 9 10 11 12.

Jesus □□□ 4

"My sheep hear my voice;

I □□ 3 □ them

and they □ 2 □□□□ □ 7

I give them eternal life;

And they shall never 8 □□□□□ .

And no one can take them out of my □□□ 12.

My father, who has 1 □□□□ them to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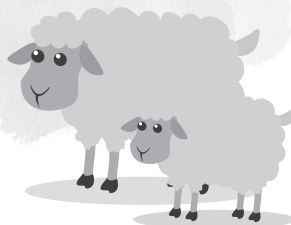
□ 5 □□ 10 □□□□ than all,

And no one can take □ 6 □□

Out of the Father's hand.

The □□□ 9 □□ and I □ 11 □ one."

WORD LIST	
Follow	is
given	them
perish	father
greater	know
me	hand
said	are



Diocese of Arlington Vocations Prayer



Heavenly Father, Lord of the harvest, call forth vocations to the priesthood and consecrated life from our diocese and our families.

Inspire men to imitate Christ the Eternal High Priest

in sacrificial service to Your Church.

Move the hearts of men and women

to offer themselves wholly to You in poverty, chastity, and obedience.

Send them as laborers

for Your harvest.

Inspire the faithful to support them with prayer and sacrifice.

Raise up holy families who foster openness to Your call.

We ask this through Christ, Our Lord.

Amen.

Mary Immaculate, pray for us

St. Thomas More, pray for us

St. Elizabeth Ann Seton, pray for us

ANNOUNCEMENT

1 **No class for 6th- 8th Graders on May 12**

2 **No Sunday School (K-12th) on May 19**

• Parish gathering 장터 한마당

3 **No Sunday School (K-12th) on May 26**

• Memorial day weekend

1 성모의 밤

- 일시: 5월 24일(금) 오후 7:30
- 꽃 봉헌과 함께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봉헌하니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2 단체부 회의

- 일시: 5월 12일(일) 오전 11:30(B-3,4)

3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5월 12일(일) 오후 1시(B-1,2)

4 베드로회 모임

- 일시: 5월 12일(일) 오후 1시(A-2)

5 본당 M.E. 부부를 위한 피정

- 일시: 5월 12일(일) 오후 1시-5시, 본당

6 2019년 친교의 장터 한마당

- 일시: 5월 19일(일) 10시 미사 후
- 각 구역별 음식 판매와 흥겨운 게임 등이 진행될 장터 한마당에 모두 참석하시어 사랑의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7 하상회 성지순례

- 일시: 5월 15일(수) 오전 9시 - 오후 5시
- 장소: 국립 성모 동굴 성지(Chapel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 준비물: 목주, 간편한 복장과 운동화(점심, 음료, 차편 제공)
- 회비: 일인 - \$30 / 부부 - \$50
- 문의: 원응식 요셉 (703)915-6114

8 사도 임원회의

- 일시: 5월 17일(금) 오후 8시(B-1,2)

9 성인 견진 성사반 교육

- 강사: 강두영 암브로시오 신부님
- 일시: 5월 15일(수), 5월 22일(수) 오후 7-9시(A-1,2)
- 문의: 안윤민 교육부장 (571) 275-0691

10 CYO Lock - in

- 일시: 5월 17일(금) 오후 6:30 - 5월 18일(토) 오전 9시 오전 9시(친교실, 하상관)
- 대상: 9학년-12학년
- 문의: 이희준 아오스딩 교감 (703) 627-0799

11 K of C 모임

- 일시: 5월 18일(토) 오후 7시(B-1)

12 하상회, 만나회 모임

- 일시: 5월 19일(일), 장터 한마당

13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5월 19일(일) 오후 1시(하상관 #4,5)

14 주일학교 휴교

- 5월 19일(일) - 학생미사: 오전 10시(친교실)
- 5월 26일(일) - 메모리얼 데이 연휴

15 불우이웃 돕기 야드 세일

- 일시: 6월 1일(토), 6월 2일(일)
- 장소: 성당 친교실, 주차장
- 물품 기증: 5월 12일(일) - 5월 26일(일)까지 (사용 가능한 물품을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김 소피아 (703)314-0905

16 제11차 동중부 성령대회

- 성령께 의탁하며 성령 안에서 기쁜 신앙 생활을 하고자 원하시는 교우분들을 말씀과 찬양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 일시: 5월 26일(일) 오후 1:30 - 오후 9시
5월 27일(월) 오전 9시 - 오후 5시
- 강사: 전동혁 베드로신부(신시내티 한인 성당 주임신부)
- 주제: 승리하는 성령
- 접수: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회비 \$30)
- 문의: 이혜원 요셉파나 (301)356-1585

17 K of C 장학금 에세이 콘테스트

- 에세이 제목: As a Korean Catholic American, what does diversity mean to you?
- 마감: 5월 19일(일)
- 발표: 6월 2일(일)
- 접수: 성당 사무실, 회의실
- 문의: 하진 세바스찬 (703)376-1372

18 76차 동북부 M.E. 부부 주말 교육

- 일시: 5월 25일(토) 오후 7시- 5월 27일(월) 오후 5시
- 장소: DoubleTree by Hilton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 연락처: 김창호 요한 비안네 (tjohnkim@gmail.com)

19 5월 성모성월 성물부 세일

- 5월 동안 성물을 20% 세일하니 많이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Fire Drill 은 지난 주일 우천 관계로 이번 주일(12일)에 합니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5월 12일(일)	부활 제4주일	Mother's Day, 단체부 회의(오전 11:30, B-3,4),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1,2), 베드로회 모임(오후 1시), M.E. 피정(오후 1시-5시, 본당)
13일(월)	부활 제4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14일(화)	성 마타야 사도 축일	하상 성인학교(오전 9시), 평일미사(오후 7:30), 성령 기도회(오후 8시),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15일(수)	부활 제4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첫 영성체반/학생 견진반(오후 7:45, 하상관), 하상회 성지순례
16일(목)	부활 제4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17일(금)	부활 제4주간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평일미사(오후 7:30), CYO Lock-in
18일(토)	부활 제4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하상 한국학교 (오전 9:30), KofC 모임(오후 7시, B-1)
5월 19일(일)	부활 제5주일	장터 한마당(오전 10시 미사 후, 본당 뒤 주차장), 학생미사(오전 10시), 주일학교 없음, 만나회/하상회(장터 한마당), 꾸리아 월례회의

2차 헌금

이번 주일은 Catholic Relief Services 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부활 제4주간: 시편 10, 1 코린 8**

KACM TV 하이라이트

5월 16일(목) 오후 5:00-6:00
5월 17일(금) 저녁 8:00-9:00
5월 19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특집 - 소명 2**: 바로 딸 수녀회의 하루를 여는 기도 "시청각 기술 세계가 인류의 행복에 쓰이게 하소서"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5월 5일(부활 제3주일)

주일헌금	\$7,669.00
교무금	\$7,302.00
교무금(크레딧카드)	\$2,050.00
특별헌금	\$600.00
2차헌금	\$0.00
합계	\$17,621.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배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	구역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기도해 주세요

-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버라), 정명금(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버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타), 오인균(바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검(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젬마),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수현(바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기보노),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 ♥ **군복무자**
김도윤(유지니),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마카벨),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또), 손범기(펠릭스),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윤벽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정동길(피터), 전성호(세레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엘(마카렐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바로),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이나시오), 제임스 리(요한)
- ※ 기도해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키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도)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아병일 (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 이정태 요셉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체넬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암 보험·메디케어 장기 간호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페어팩스 부동산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프렌즈 홈/데이케어 간병, 간호, 물리치료 서비스 문의: 마리아 막달레나 홈케어 703-231-6030 데이케어 703-424-7533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스킨 스튜디오 일인 피부 관리실 유연수 (안젤라) 703-507-005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갖고 계신 플랜을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HYN 부동산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예비 펫 그루밍 강아지 Spa & 미용 703-815-1166	원 통증·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703-670-8959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